

INSIDE

YTN

5

6



2016. vol.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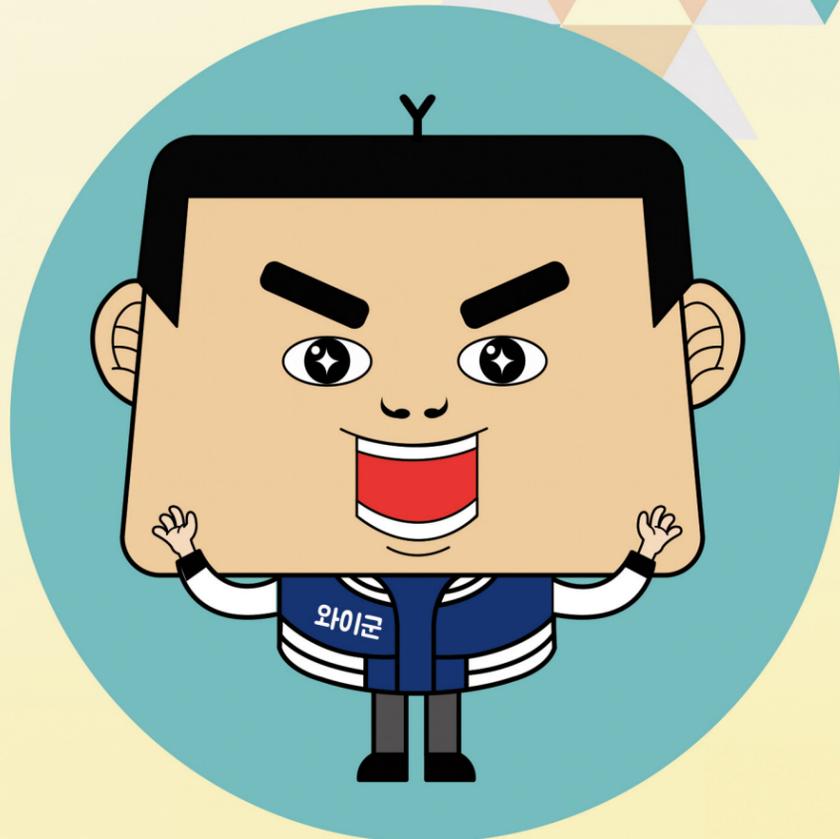
더 나은 내일을 엮습니다

삼성, LG, HP 노트북 살 땐?

오직 대학생만 가능한 할인 이야기!

교육할인스토어

와이군 닷컴 (www.ygoon.com)



CONTENTS

05May - 06Jun 2016/vol.122



SIDE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박현웅 작가

26 홍경한 | 상상력 가득한 삶의 에세이

앵커의 변신 _ 오동건 앵커

28 최영아 | YTN Never Dies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_ 슈베르트 첼로 소나타 a단조 '아르페지오네'

30 유석현 | 5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낭만인 탐구 _ 이해민 기상캐스터

32 이해민 | 날씨를 그리는 꿈꾸는 기상캐스터

최광희의 News In Cinema _ 스포트라이트

34 최광희 | 보라! 여기 진짜 기자들이 있다!

YTN 견학기 _ 청소년 발명기자단

36 서기원 | 세계를 향한 방송! 열정을 담은 기자단!

37 김예준 | 기자 정신이 궁금하면 YTN으로 오세요

38 YTN 이모저모



IN

In Newsquare

04 협업이 보여준 힘, 선거방송 | 이정미

알파고 시대, 소셜 미디어의 바다에 뛰어들다 | 나연수 06

YTN 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사건 - 남산 오픈 스튜디오 특별 생방송 | 정재훈 08

'다큐멘터리'로 '과학'을 알리다 | 김신영 10

WorldWide YTN

"Kami Tidak Takut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 정 선 12

Exclusive Now

CNN에 인용될 그 날 | 아선아 14

한밤중에 온 전화 "학;; 비행기" | 김평정 16

<강소기업이 힘이다> 방송 1년 특별 기고

강소기업이 진짜 힘이다 | 서경석 18

YTN에게 바란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나은 YTN을 위하여 | 정재민 20

지국은 지금 _ 부산지국

부산 소고 (溯考) | 강현석 22

부서탐방 _ 매체협력팀

변화하는 방송 트렌드, 그 곳에 우리가 있다 | 한기종 24

3월, 4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25



표지 박현웅 작 <오스카의 컬렉션> 98,5×129,5cm mixed media 2014

작가 박현웅은 경험, 기억, 회상을 토대로 퍼즐을 만들 듯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세계를 구축한다. 보편적인 스토리의 구성이지만 상상력의 가미가 있기에 맛깔스럽고, 특히 순수한 심상을 관계적 삶과 고스란히 연계한 결과로서의 작품이라는 점은 눈길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가 개척한 나름의 분야인 '목공예회화'는 나무판 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잘라내 여러 층으로 중첩시켜 완성하는 일종의 '부조회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그림은 입체적일 뿐더러 빛에 의해 표정을 달리하는 울동이 있다. 신비롭고 묘한 기분, 왠지 모를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만의 독특한 조형방식 때문일 것이다.



협업이 보여준 힘, 선거방송

두둥! 개봉박두! 선거방송 당일. 긴장 속에 YTN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뉴스채널인 YTN에서 매일 뉴스를 만들고 방송을 내보내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저 그런 날 가운데 하루일 것이다. 아니, 무언가 사건이 발생해 특보를 하는, 조금은 손이 더 가는 하루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는 이들, 바로 선거방송을 준비한 사람들이다.

이정미 기자 | 선거단

선거방송을 끝내고 나면 선거단은 늘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듣는다. 비판도 가장 앞에서 받겠지만, 칭찬도 가장 앞에서 받는 게 선거단이다. 하지만 선거단을 들여다보면 구성원은 단 세 사람, 과연 이 세 사람이 선거방송을 했을까? 답은 뻔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시청자가 편하게 보는 뉴스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듯, 선거 당일 하루 나가는 선거방송 역시 준비과정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 사보에서, 아니 사보이기에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가 선거단에 합류한 시점은 김지선 기자와 그래픽디자인을 총괄한 유영준 선배가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놓은 뒤였다. 한 차례 선거방송 경험이 있는 김지선 기자는 이미 지상파와 비교해 YTN이 가진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 기획하고 있었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할까? 목표는 세 가지였다. 투표시간대 남다른 기획, 출구조사 시간대 신속한 지상파 활용, 개표시간대 분석 아이템. 수십억 원을 들인 지상파 출구조사에, 통계학적으로 정확성이 더 떨어지는 예측조사로 맞대결을 하는 것은 과감히 포기했다.

대신 미리 실시한 여론조사로 선거 전에 치고 빠지는 전략을 택했다. 실제로 언론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휴대전화를 포함한 여론조사는 70% 넘는 적중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선택과 집중 덕분에 선거 당일용으로 준비한 차별화된 기획 아이템들도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모든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는 기술연구소가 있었다. 타사는 외주에 맡기는 프로그래밍을 거의 유일하게 직접 해내는 곳이 YTN 기술연구소다. 타사는 별도 팀을 꾸려 진행하는 빅데이터 분석도 YTN은 기술연구소에서 담당했다. 아이템을 보다 재밌게 하기 위해 각종 분석 데이터를 요청했음에도 기본 데이터만 찾아 맡기면 모든 분석을 해주었다. 또,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 보도 역시 복잡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프로그램화해, 30초 만에 지상파 3사의 예측을 한 눈에 보여주는 결과를 내놓았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10초 만에 정확히 받아친 모니터 조의 활약이 있었다. 실시간 분석 아이템과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아이템을 가능하게 한 것도 기술연구소였다. 선거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만 더 내놓는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다른 방송사보다 뛰어난 결과물을 도출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R&D팀 역시 선거방송을 만든 주역이다. 4스튜디오가 조금만 더 넓었다면 더 멋진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적인 아쉬움은 뒤로 하고, 너무 화려하거나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그래픽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접전과 표차 등 핵심 정보를 강조한 그래픽부터, 3D 캐릭터 개발,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뒤에 기획한 지역별 이슈 아이템까지 R&D팀의 지원이 있었기에 마무리가 가능했다. YTN에선 처음 기획한 남산 영상 개표율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하는 이승준 선배의 촬영 영상에 새로 뽑힌 나예진 씨의 그래픽

이 결합됐기에 나올 수 있었고, 투표시간대에 처음 도입한 투표율 하단은, 자막 위치 값을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래픽팀 민지 씨, 유정 씨, 자막 담당자들의 꼼꼼함으로 보완했다. 선거단의 욕심으로 벌여놓은 여론조사 보도에는 이종구 선배를 비롯해 이강진, 권준기, 강진원, 그리고 정치부 막내들의 지원이 있었고, 이념조사 보도 뒤에는 막판에 지원인력으로 투입된 김수진 선배가 있었다.

이 밖에도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달려 특색 있는 인터뷰를 따준 지국 선후배, 동기들과 스타들의 인터뷰를 따준 문화부와 스포츠부, 지역축제 투표율에 국악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아이 웃음소리와 불꽃놀이 등 현장음을 넣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준 음악실 장식문 선배, 야근을 마다치 않고 영상물을 편집해 준 영상편집팀 연진영 씨, 추가 근무를 하면서 사전녹화를 도와주신 부조 감독님들, 선거를 앞두고 2부조를 내주고 1부조에서 방송을 준비해야 했던 편집부 PD들, 어려운 내용을 숙지해 생방송을 잘 이끌어준 앵커들, 선거방송이 이 모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최소한 선거단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감사드린다. 또, 이게 YTN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믿자. 다음엔 더 나은 선거방송이 있기를 기대한다.



알파고시대, 소셜 미디어의 바다에 뛰어들다!!!

나연수 앵커 | 앵커실

“이런 걸 물어봐줘, 프로 기사들도 알까기를 하나요?”
“뭐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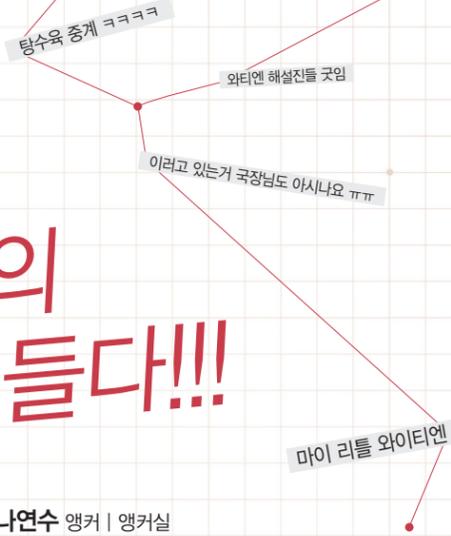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을 하루 앞두고, YTN플러스 권준기 팀장은 커피 한 잔 사주며 이상한 부탁을 했다. 세기의 대결이래도요, 기계 문명의 디스토피아에 바둑돌 용사가 맞서고 있는데, 알까기라뇨, 프로 바둑기사를 모셔놓고요?

선배의 제안은 이런 것이었다.

페이스북이 라이브 기능을 제공한다. 해외 언론사들은 발 빠르게 활용해 시청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우리도 시험해보자. 웹 기반 콘텐츠이니 힘 빼고 잡담하듯 하면 된다. 선배는 CNN과 CBS의 폐북 라이브를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잡담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은 뒀지만 해보기로 했다.

뭐가 되었든 해봐야 아는 거니까.

한해원 한국기원 프로 3단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대국 첫날, 우리는 아이폰을 들고 바둑 해설진이 있는 디지털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YTN 페친(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고 인사하는 순간, 시청자수는 수백 명을 넘겼다. (YTN 계정을 '좋아요' 한 페친들의 타임라인에 라이브가 바로 뜨기 때문이다.) '이거 뭐야?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시청자 반응과는 거꾸로, 해설진은 손바닥만 한 기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 “알파고, 너무 잘 하는데?” 스튜디오 카메라가 돌아갈 땐 차마 드러내지 못한 당혹감이 솔직하게 터져 나왔다. 스튜디오 온에어가 꺼진 뒤에야 시작된 생생한 관전평. 제작진은 이걸 놓칠세라 흥분한 나머지 격렬하게 아이폰을 들이댔다. 카메라맨이 누구냐, 그만 좀 흔들어라, 댓글을 보긴 하는 거냐는 페친들의 성화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는 방송을(아니 실험을) 중단했다. 이세돌 9단은 황당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돌을 던졌고, 우리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 바알못인데, 여기서 보는 거 맞나요?”

페이스북 라이브는 현장의 생동감을 부각시키기에 좋은 도구지만, 바둑해설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집중도를 끌어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2국부터는 유튜브 플랫폼에 집중했다. 바둑판과 의자를 배치해 작은 세트를 만들고 '이세돌의 절친' 한해원 3단을 비롯해 입담 좋은 해설진을 섭외했다. 어차피 진지하게 대국을 관전할 사람들은 바둑TV를 본다. 우리는 바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집'이 뭔지 모르면서 누구 집이 많은지는 궁금한, 이른바 '바알못(바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토크쇼로 콘셉트를 잡았다. 태블릿 PC를 들고 실시간 채팅을 들여다보며 방송을 진행했다. “누가 이기고 있어요?” “알파고도 돌을 던져요?” “바둑 두다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땐 어떡해요?” 시청자의 별난 호기심이 곧장 토크 주제로 이어졌다.

“여기서 탕수육 먹고 있는 거 국장님도 아시나요.”

3국부터는 채팅창에 '소문 듣고 왔습니다.'라는 말이 자주 보였다. 동시 시청자수가

홀쩍 뛰었다. 유례없는 방송사 바둑대전 탓에 출연해줄 프로 기사를 찾지 못해 울며불며 섭외한 아마추어 해설진이 '신의 한 수'였다. 게임 캐스터로 유명한 김철민 씨, '더 지니어스'에서 카이스트 출신 천재로 주목받은 오현민 씨가 등장하자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젊은 시청자들이 격하게 반응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대세라는 '떡방'이 빠질 수 없지! 착수점 내기를 벌인 끝에 스튜디오에는 짬뽕, 탕수육이 배달됐고 이세돌 9단이 홀로 악전고투하는 동안 스튜디오에서는 때 아닌 '부먹', '찍먹' 다툼이 벌어졌다. 부어라, 찍어라 난리가 난 채팅창에 웬지 우리를 부끄럽게 한 시청자의 한 마디. “이려고 있는 거 국장님도 아시나요...”

알파고 시대, 소셜 네트워크에 뗏목을 띄우다.

세기의 대결 속 타이틀 하나 없이 진행한 YTN 유튜브 라이브의 누적 시청자는 18만 8천 명이었다. 'YTN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 채팅창에 가장 자주 올라온 반응이다. YTN플러스 팀의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었을 뿐이다. 다른 무엇도, 24번 틀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십수만 시청자의 손바닥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 남산 특별방송과 총선 선거방송에서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SNS 이용자와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눌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연못에 둘러앉아 낚시줄 드리우고 어찌 물고기 없다고 한숨 쉬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몇 사람이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나가보았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 생물이 떼지어 돌아다니고 돌고래가 파도를 타는 곳. 수심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는 이미 돛단배 수백 척이 경주를 벌이고 있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는 알파고 시대, 시청자들은 더 이상 손 놓고 앉아 뉴스를 시청하기를 원치 않는다. 뉴스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피드백 받고 이 피드백을 공유하면서, 매순간 공통의 경험, 찰나의 집단문화를 형성하기를 원한다. 그 강력한 욕구로 넘실대는 바다, 우리는 소셜네트워크라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찾는 중이다.



YTN 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사건

- 남산 오픈 스튜디오 특별 생방송

정재훈 부장 | 보도국 편집3부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중순쯤 남산에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어 생방송 뉴스를 진행한다 는 결정이 내려진 건 3월 어느 날이었다. 화사한 봄꽃 소식을 전하며 YTN이 소유한 서울타워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였다. 20여 년의 짧지 않은 YTN 역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오픈 스튜디오 생방송인 만큼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 1주일 당겨진 방송 일정

4월 15일로 방송일을 잡아 놓고 관련 부서와 함께 방송 계획을 구체화 하던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지나치게 따뜻한 봄 날씨로 벚꽃이 예상보다 일찍 피 방송 날짜가 1주일이나 당겨진 것이다. 적어도 2주일 전에는 스튜디오 제작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1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급하게 스튜디오 제작에 들어갔다.

• 오픈 스튜디오는 YTN 제5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생방송은 야외에 책상을 놓고 생중계에 참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본사 스튜디오에 있는 장비와 인력들이 고스란히 옮겨진 형태다 보니

YTN 제5스튜디오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노력이 필요했다. 우선 오픈 스튜디오 외형을 만들어야 했고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 광 전송망을 갖춰야 했다. 앵커용 프롬프터와 앵커용 인터넷 연결이 필요했고 큐시트 출력용 프린터도 설치해야 했다. 스튜디오 조명과 지미캠 카메라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해결했다. 취재지원 버스는 임시 분장실로 활용됐다. 기술국은 오픈 스튜디오에 필요한 것들을 모아 체크리스트를 만든 뒤 꼼꼼히 준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 조마조마했던 첫 방송

방송 전날야야 스튜디오가 완성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리허설은 해보지도 못한 채 첫 방송을 맞았다. 현장에 있던 모두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 타이틀에 이어 “봄맞이 특집으로 마련된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라는 앵커멘트가 들리는가 싶더니 2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다. 꽃소식 중계와 서울타워 꼭대기에서의 TVU 연결은 물론 출연 코너와 일반 뉴스까지 전 과정이 부드럽게 이어졌다. 회사 내 부조에서 진행되는 PD와 현장에 나와 있는 스태프 사이의 의사소통이 문제 없이 이뤄진 것이다. 20여 년 간 축적된 YTN의 중계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된 결과였다. 우리는 대과 없이 끝난 첫 번째 벚꽃 방송을 박수로 자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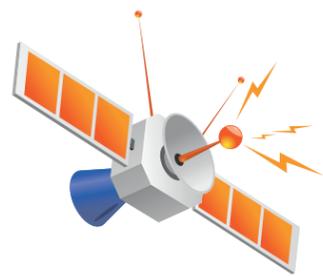
• 여름과 겨울이 공존한 오픈 스튜디오

낮 12시 방송에 맞춘 스튜디오 내부 조명은 예상보다 강했다. 환한 바깥 환경에 맞춰 조명의 강도를 높여야 했기 때문이다. 앵커들은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어 했고 최수호 앵커와 최영주 앵커는 어느새 땀범벅. 혹시나 시청자들이 눈치 채지는 않을까, 중계차 안에서 방송을 지켜보며 2시간 내내 안전부절 못했다. 봄철에도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해가 지자 언제 그랬느냐 싶게 기온은 급강하했다. 남산 꼭대기라서 일교차가 더 큰 듯 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던 스튜디오 안은 어느새 냉장고 속과 비슷해졌고 밤 9시 방송을 맡은 호준석 앵커와 김선영 앵커는 손이 곱아 원고를 넘기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에어컨과 난로를 함께 준비해야 하려나...

• 전 직원의 정성이 깃든 '남산 오픈 스튜디오 생방송'

이번 생방송은 YTN 전 임직원이 머리를 맞댄 결과의 산물이다.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조언을 전해주셨다. 개화 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YTN 사상 최초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약 100명의 동료들은 값진 경험을 얻었다. YTN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이벤트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참여 인원 전원의 경험을 모은 상세한 기록이 다음 특별 생방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원한다.





'다큐멘터리'로 '과학'을 알리다.

김신영 팀장 | 사이언스TV국 콘텐츠제작팀

YTN 사이언스는 상반기 개편을 맞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07년 개국 이후로 수많은 과학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주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YTN 사이언스의 간판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방송 : 매주 목요일 밤 8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다큐S>

<다큐S>는 SCIENCE, SECRET, SPECIAL을 나타내는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제목의 주간 다큐다. 1인 미디어가 뜨는 이유, 도심 속 주차난, 에너지가 되는 폐자원 등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에서 아이템을 찾아, 무심코 지나쳤던 현상에 대해 “아, 그렇지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전해준다.

방송 : 매주 화요일 밤 8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나 <녹색의 꿈>

<녹색의 꿈>은 환경에 대해 다룬다. 환경다큐멘터리라고 하면 흔히 자연이나 야생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질문을 주제로, 도시의 발달로 생기는 환경 파괴나 부작용을 극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건강한 환경에서 공존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다.



방송 : 매주 수요일 밤 8시



스마트한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K-ICT>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현금이 사라지고, 운전할 필요 없이 되는 시대는 과연 언제 오는가? 정보통신과 융합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핀테크, 무인·전기자동차 등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만날 수 있다.

방송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연구소의 모든 것 <연구소365>

'과학자'는 많은 이들의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을 채우는 단골 메뉴였다. 그만큼 동경의 대상이었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과학자, 연구원들은 미래 세상을 앞당기는 선구자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많은 연구소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연구소와 연구원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다.

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과학은 쉽고 재밌다 <이지 사이언스>

현대 세상을 들여다보면 과학의 원리와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렵고도 어려운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이지 사이언스>가 그 선입견에 도전한다. 달걀로 바위를 깰 수 있을까? 물속에서도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면 <영리한 질문 유쾌한 상상> 코너 등 짧은 질문에 명쾌한 해답으로 궁금증을 해소한다. 방송 뿐 아니라 SNS에서도 인기 높은 콘텐츠다.



방송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과학관은 살아있다 <인사이드 과학관>

국·공립과학관을 비롯해 사립 박물관까지! 전국 130 여개 과학관과 박물관의 콘텐츠를 매주 만날 수 있는 국내 첫 과학관 탐방 프로그램이다. 과연 거미가 쥐를 어떻게 잡아먹는다는 것인지, 에디슨이 남긴 3대 발명품은 무엇인지, 울산 앞바다에 살던 그 많던 고래는 다 어디로 갔는지 등 알쏭달쏭 궁금증을 전국의 과학관에서 풀어본다.

방송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소프트웨어 놀이터>에서 놀자

미래를 이끌 제2의 빌 게이츠를 찾아라! 내가 직접 인공지능 선풍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로봇을 움직이고, 피지컬 컴퓨팅을 하면 어떨까? 청소년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보물단지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주인공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만나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Kami Tidak Takut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선 리포터 | 인도네시아

YTN은 세계 37개국 52개 도시에 62명의 해외 리포터를 두고 있다. 애초에 동포소식 전달을 위해 모였지만 15년이 넘는 이제는 각종 사건사고와 현지 소식 보도에 특화된 못지않은 활약을 해 주고 있다. 올해만 해도 파리 테러사건, 마닐라 한인 피살 사건, 파키스탄 지진, 타이완 출신 아이돌 쓰위 사태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다. 정선 리포터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테러 당시 1보와 전화연결, 화면 제보, 리포트 송고까지 전과정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16일 일요일 아침, '차 없는 날'을 맞아 자카르타 사리나물 지역 테러현장에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테러 발생 이틀 후인 이날 TV들은 생방송으로 "왜 자카르타 한복판에서 테러가 발생했나?"를 물으며 시민과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대담방송을 했다.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협회는 "ISIS를 추종하는 사람은 인도네시아를 떠나라."고 외쳤다. 인도네시아관광산업협회는 "인도네시아로 오세요,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질게요."라고 성명을 냈다.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극단주의 테러추종자들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 10만여 자카르타 시민들은 사리나물 테러현장에 모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Kami Tidak Takut)"고 외쳤다.



시민집회 이틀 전인 1월 14일 아침 10시경,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 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을 꺼내자마자 문자가 날아왔다. "지금 사리나 물에서 폭탄이 터지고 테러범과 총격 중." 뭐? 자카르타 한복판에서 테러범과 교전 중이라고!! 17층에 내리자마자 로비에 있는 안내원에게 "자카르타에 테러가 발생했나?" 물으니 "모른다."고 한다. 현지 기자에게 전화했다. "교전 중" "사망자 2명 발생"이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TV는 정규방송을 중단했다. 특수부대 차량의 경적소리만 울릴 뿐 자카르타 시내는 순식간에 적막에 빠졌다.

테러범은 사리나 물 스타벅스 커피숍에 들어가려다 경찰의 검문을 받자 폭탄을 터뜨렸다. 평소 미국인과 유럽인 배낭객들이 자주 가는 곳이고 나도 수없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던 곳이다. 길가의 커피점이라 평소 검문도 없는 곳인데 어떻게 알고 경찰이 그들을 제지했을까? 만일 테러범들이 커피숍에 들어가서 인질극이라도 벌였다면...

'아... 빨리 YTN에 먼저 알려야지...' 해외방송팀 PD에게 카톡을 몇 자 쓰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오타가 나서 2~3번 반복해 써야만 했다. "자카르타 테러사건 발생 2명 사망 총격 중." 경찰의 발표가 방송사보다 늦어지자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속보들이 난무했고 방송도 이를 받아쓰고 있었다. 내가 대표로 있는 한인포스트 신문의 모든 직원들에게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각 방송사와 신문사, 경찰청 발표를 확인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교민 3천500여 명이 가입된 한인포스트 밴드 앱에는 <속보 자카르타 테러 발생>방을 만들고 나오는 모든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폭주하는 전화와 문자에 물 마실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 오히려 현지인들이 나에게 전화해서 어찌되느냐고 물을 정도였다. 폭탄이 몇 군데 더 터진다는 속보와 테러범들이 도주하고 있다는 정보에 숨을 쉴 시간도 없었다.

YTN TV와 라디오에서도 전화가 폭주했다. 사전에 질의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할 시간조차 없었다. 테이블에 올라온 메모지와 문자, 사건 현황들을 들어오는 대로 가감 없이 전달했다. 경찰은 5시간 만에 테러범 4명이 완전 소탕

되었다고 발표했다. ISIS는 사망자가 8명이나 발생한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에서 ISIS가 저지른 첫 테러였다. 이날 오후 늦게 대통령이 방탄복도 안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불과 2시간 전까지 군중 속에서 총을 들고 사격을 하던 테러범이 있던 자리에서 대통령은 테러소탕에 자신이 있다고 전 세계에 밝혔다. 테러관련자들이 전국에서 하나 둘 체포되고 사살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문화가 다른 350여 민족이 사는 다민족 통일 국가이다. 인구의 80%가 무슬림이지만 국교는 없고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 6대 종교의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타민족의 문화와 인종, 종교에 대한 비방을 금기시하는 전통적 사고에 더해 '판자실라' 즉 '다양성의 일원화'라는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거대한 5개 섬나라를 하나로 묶는 대의제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다. 이번 테러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유독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추종자들의 편협성 때문이다. 테러범들은 종교와 인종도 구분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고, 돈 없고, 못 배운 자들이 아니다. 이념 과잉상태에 빠져 자국민을 공격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이다. 자카르타 시민 10만 명은 바로 이런 테러범들을 향해 분노를 표한 것이다.

YTN 방송에 나갔던 영상 링크들을 최근야야 봤다. "속보 자카르타 테러 발생" 긴박했던 내용들이다. 당황해서 더듬거리는 음성이 역력하다. "사무실에 갇혀 있지 말고 테러현장에 달려가서 생생한 현장보도를 할 걸." "왜 다른 리포터처럼 좀 더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하지 못했지?"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대한 상황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준 YTN에 감사하고 뉴스전문채널 YTN의 유일한 인도네시아 리포터라는 점에 자부심을 갖는다.





CNN에 인용될 그 날

이선아 기자 | 보도국 정치부

새 유엔 제재 적용 첫 사례로 필리핀 항구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화물선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들어왔다. 혹시나 하고 전 세계 운항 중인 선박을 추적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필리핀 항구에 문제의 북한 선박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와 함께, 국적이 북한이 아닌 시에라리온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시 제재 대상 북한 화물선 중 나머지 서른 척도 추적했다. 1/3 정도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온 북한이 이를 피하려고 상습적으로 국적 위장을 하고 있으며, 외교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선박을 계속해서 추적했다. 첫 단독 보도를 하고 이틀 뒤, 중국과 러시아 항구 몇 곳에 드나든 기록이 확인됐다. 해당 항구에 들어갔다가 중국과 러시아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무사히 나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확인 결과, 우리 정부 요청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입항을 거부한 사례였다. 전례 없이 강력하다는 유엔 제재 내용 가운데 핵심인 화물 봉쇄 제재가, 발효 일주일도 안 돼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단독 보도할 수 있었다.

제재 발효 두 주쯤 지났을 때 제재 대상 선박 2척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 있다는 자료를 포착했다. 한 척은 이미 영해에 들어왔다가 벗어난 상태고 한 척은 취재를 하는 그 시각에도 우리 영해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경을 통해 확인됐다. 이어 외교부와 통일부, 국민안전처 등 당국에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이 선박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생방송 연결과 리포트로 또다시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다.

통일 외교 분야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 취재가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해외 매체나 확인되지 않는 여러 '대북 소식통'을 인용하는 경우가 잦다. 또, 당국자나 전문가 말만 듣고 쓰는 기사가 태반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도는 공개되고 믿을 수 있는 북한 관련 정보를 국내외 매체 가운데 가장 앞서서 추적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당국자의 확인까지 받아냈다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만족스러웠던 보도였다고도 감히 이야기하고 싶다.

북한 관련 내용은 정보 사항이라는 이유로 당국자의 확인을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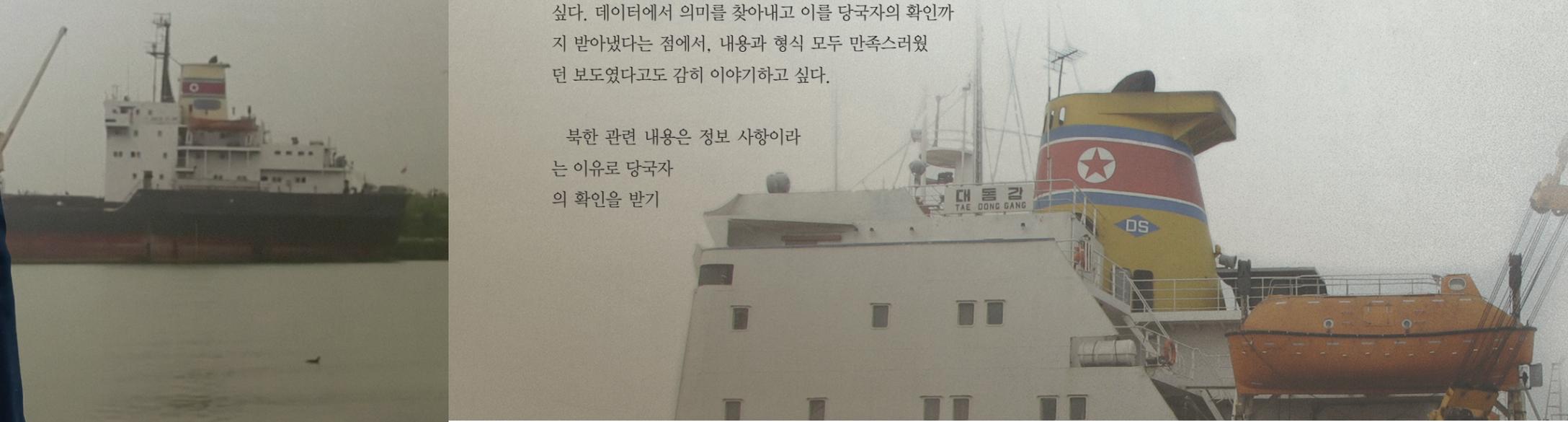
가 쉽지 않은데, 이번엔 세 건의 보도 모두 이례적으로 당국자가 즉시 확인해줬다. 취재 내용이 그만큼 정확했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간 웹사이트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YTN의 방식은 새로운 취재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정도로 이후 다른 매체들도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

해외 매체보다 상대적으로 북한 취재가 제한되는 환경에서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보도를 앞서 이끌어 나갔다는 점에서도, 전 세계 유일한 부처인 '통일부'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굉장히 뿌듯했다.

곧 북한 가장 큰 정치 행사라는 노동당 대회가 열린다. CNN을 비롯한 여러 외신 기자들이 북한 초대를 받고 평양에 들어갔다. 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 통역도 필요 없는 우리지만 한국 기자들은 갈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 번 외신 기자가 보내는 화면과 기사를 참고해서 '카더라' 기사를 써야할 것이다. "CNN, Pyongyang, North Korea" 하면서 스탠드업 잡고 중계방송하는 기자를 부러워해야겠지.

하지만, 나는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하나 돼서 김정은·이설주 부부를 전 세계 어느 언론사보다 더 먼저 인터뷰하고, CNN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사가 내 인터뷰 기사를 받아쓸 그 날이 올 것이다. YTN의 북한 관련 기사가 CNN에 단골로 인용되는 그 날까지,

“서울에서 YTN 이선아입니다.”





한밤중에 온 전화 "헉;; 비행기가"

김평정 기자 | 보도국 사회부

"지인이 탄 중국행 항공기가 이륙 직전 충돌할 뻔했다더라."

야근을 서다가 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한 통으로 취재를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었다.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지인'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급히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미 여객기는 중국으로 출발한 상황이었다.



실마리가 풀린 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확인된 팩트 하나! 대한항공 여객기의 기장이 "착륙할 때 활주로에 중국남방항공 여객기의 머리가 나와 있었다"고 항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돌 위기가 실제로 있었고 기장이 항의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다.

이후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당직실을 통해 두 항공기의 원래 출발·도착 시각과 지연된 출발·도착 시각, 지연 운항된 이유, 탑승객 수 등을 취재했다. 항공기 운항이 끝난 밤에 취재했기 때문에 전화 취재를 기본으로 했지만 직접 청주공항 현장에 나가 두 항공기가 지연된 원인인 안개 같은 기상 악화 상황도 확인하고 리포트 영상에도 반영했다.

수차례 시도한 결과 중국 다롄에 도착한 제보자의 '지인'과도 간신히 연락이 닿았다. 직접 사고를 겪은 당사자가 전한 상황은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마치 승용차가 급정거하듯이 갑자기 서는 바람에 승객들이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칠 정도였다. 더욱이 급정거한 항공기 앞으로 다른 항공기가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승객들이 목격했다.

사건을 재구성하면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던 활주로에 중국남방항공 여객기가 동시에 진입했던 것이다. 두 여객기에는 각각 140여 명과 90여 명이 타고 있었다. 부딪혔다면 대형 인명 사고가 불가피했다.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밤새 단독 리포트를 준비했다. 사고가 났던 정확한 시각은 물론 이륙과 착륙 시각이 겹쳤던 이유, 승객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조치가 있었는지, 관제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이어 관

제 시스템이 거듭 고장 나 항공기 수십 대가 운항에 차질을 빚었던 기존 제주공항 사례를 더해 관제탑의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재연하는 것은 물론 문제의 원인도 짚는 기사를 완성하려 최선을 다했다.

새벽 5시에 첫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즉시 반응이 쏟아졌다. 곧이어 타 매체에서도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고를 공식 확인하면서 주요 언론이 지면 상단과 메인뉴스 시간에 보도했다.

불과 4시간 남짓한 동안에 사고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군이 책임지는 관제탑을 취재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탑승객의 증언에서 출발해 여러 관계 기관을 거듭 취재하며 사고의 전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원인 조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먼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확한 원인과 함께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도 확인하고 이후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도 거듭 검증하도록 할 것이다.



강소기업이 진짜 힘!이다

서경석 <강소기업이 힘이다> 진행자

“여보세요, 서경석 씨죠? YTN 000부장인데요,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아, 네. 통화는 괜찮은데요, YTN이요? 저 잘못된 것 없는 데?^^”

1년여 전 <강소기업이 힘이다> 담당 부장과의 첫 대화였다. 그녀와의 대화가 2~3분 계속된 후, ‘YTN에서 왜 나에게 전화를 했지?’했던 의아함과 어색함은 금세 사라져 버렸다. 기존의 건조한 방식의 기업소개 프로그램이 아닌, 의미는 기본이요, 재미와 따뜻함까지 있는 경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진행자로 나를 초대하고 싶다는 말에 나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건네고 일단 전화를 끊었다.

이제야 얘기이지만, 나는 사실 첫 통화 때 이미 출연을 결심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경험하며 ‘언젠가는 사업으로 무언가를 이뤄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려야지.’하는 막연한 ‘사업가의 꿈’이 쪽 있었기에, 대학 입학 이후부터는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 활동과 현상에 관심을 두고 각종 경제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을 빠트리지 않고 보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 중의 하나가 바로 <강소기업이 힘이다>와 같은 프로그램이었을 것이다. 다만 단번에 “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너무 없어 보일까 봐 하루 기다렸다가 답을 했던 것 같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 1회 기업이었던 ‘마이더스 아이티’ 본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우리 집 밥보다 여기 밥이 훨씬 맛있어요.’ 라고 얘기한 것이 방송에 나가고 아내에게 한 달간 밥 못 얻어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개 기업을 만났다. <강소기업이 힘이다> 시작 전에도 기업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굳이 경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과의 만남이었다. 하지만 아주 순간적인 교류였다. 왜냐하면, 주로 대기업의 제품 모델 혹은 송년회, 신년회, 시상식 등의 행사 진행자로서 가졌던 만남이었기에.

<강소기업이 힘이다>을 통해 하나하나 우리의 강소기업과 그곳의 임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른다. ‘우리 중소기업이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모델이었던 큰 회사도 이 기업이 없었으면 돌아가지 않았겠구나.’, ‘진짜사나이 녹화 2년 하고 정말 큰일 했다고 으스스했는데, 이 기업 사장의 지난 삶과 비교하면 정말 난 편하게 살아온 거구나.’ 등등.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50개나 되는 기업 네트워크가 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대중에게 친숙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사장님들은 물론이고, 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여러 기업의 CEO들과도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게 됐다. 물론 현재의 나와 아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곳이 많지는 않다. 내가 기업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 반대로 내가 기업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강소기업들은 분명히 더 성장할 것이고 나 또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훗날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YTN은 시청자 입장일 때도 참 좋아했던 방송이다. 보도의 생명인 정확함과 신속함을 어느 채널보다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강소기업이 힘이다>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추진력과 지구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가히 최고의 방송사라 아니 말할 수 없다. YTN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을 지난 1년간 매주 만났다. 하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야심차게 시작한 만큼 오래도록 프로그램이 유지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있는 히든 챔피언들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기를 기원한다.

<강소기업이 힘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기업의 기술개발과 위기극복을 통한 성장과정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해서 기업을 격려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우리 강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애로사항들도 제대로 조명해서 문제점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강소기업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난 1년간 내가 뻗속 깊이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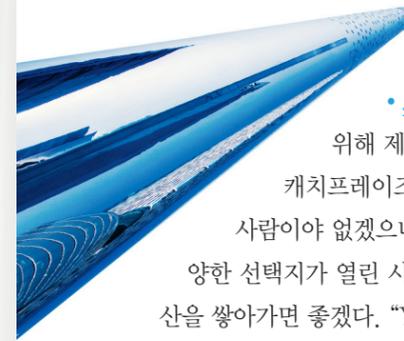
“강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힘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나은 YTN을 위하여

정재민 교수 | 카이스트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YTN을 시청하면 뉴스 하나하나 공들여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에서도 공정한 뉴스라는 이미지를 지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다른 채널에서 뉴스 안할 때 보는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뉴스를 해도 선택받는 채널, 다른 채널에서의 뉴스를 보고도 다시 봐야하는 채널을 지향하길 바라며 YTN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 브랜딩 전략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 각인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으면 좋겠다. YTN 모르는 사람이야 없겠으나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열린 시점에 다시 한번 YTN의 브랜드 자산을 쌓아가면 좋겠다. “YTN - Your True News - 당신을 위한 진실된 뉴스”를 캐치프레이즈로 대대적인 알림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 뉴스의 차별화 뉴스 형식과 내용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전문가 풀의 구성과 활용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특히, 과학, 국방,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주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분야별 전문가, 간판이 되는 스타 기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보통사람들의 인터뷰도 늘려 친근함을 주는 살아있는 뉴스로 비칠 것이다.

• 그래픽 강화 최근 YTN 뉴스 그래픽은 전보다 다양해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주마가편이라고, 그래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사에 맞춰 사후 제작하는 그래픽보다 사전에 기자들과 함께 기획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픽이 ‘보조업무’를 넘어서야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 심층뉴스 강화 심층보도와 해석뉴스의 확대에 힘써야한다. 무엇(what)보다는 왜(why)를 설명해주는 뉴스, 대안이 되는 뉴스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문제 지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시청자 밀착형 뉴스 생활 뉴스, 쉬운 뉴스, 쓸모있는 뉴스를 만들자. 5종 세트(원포인트 생활상식, 역사이야기 등)는 매우 긍정적이다. 방송 뿐 아니라, 온라인이나 모바일, 오프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속적인 국민 캠페인 ‘국민 신문고’처럼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도를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한다.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뉴스에서 ‘소재불명 초등생 추적’으로 이어졌던 것이 시의적절한 심층보도였다. 전담 경찰관 부족, 담임교사 의무 신고제 필요성 등 대책 촉구가 좋았다. 이슈 발굴이 캠페인 선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자료 화면의 재활용 빅데이터 저널리즘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정규 뉴스로 다 내보내지 못한 화면을 활용해 올림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과거 돌발영상처럼 짧지만 올림이 있는 뉴스가 임팩트를 만들고, 브랜드의 가치를 결정하고, 다시 또 그 채널을 찾게 만든다. .

• 뉴스 혁신에 가치 부여 미디어트렌드는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를 넘어 ‘모바일 온리’로까지 옮겨가고 있다. ‘BBC 3’가 지난 2월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BBC 뉴스’도 온라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한다.

• 시청자 개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시청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특히, 젊은 시청자 개발을 위해선 방송 플랫폼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서도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바일 뉴스 소비는 스낵컬처다. 자주 먹지만 조금씩 먹는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디지털 저널리즘 실험 ‘가상현실 뉴스’, ‘인공 지능’, ‘로봇 저널리즘’, ‘드론 저널리즘’, ‘빅 데이터 저널리즘’... 모두가 다 YTN에서 고민해야 될 화두이다. 낯선 길을 걸어가는 데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기술기업들, 디지털 플랫폼들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시도하고 뉴스 산업 내에서 적과의 동침도 필요한 시기이다. 실험없이 혁신은 없고, 혁신 없이는 결국 사라지게 된다.





부산 소고(溯考)

강현석 부장 | 보도국 전국부 부산지국

바다의 도시 부산.

갈매기와 영화가 생각나는 이곳은 밀물과 썰물같이 나감과 들어움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도시와 시민들의 성격도 바다와 많이 닮았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화끈하지만 뒤끝은 없는 부산 자갈치 시장 같다고나 할까요?

이런 지역 특성을 닮은 듯 부산 지국은 다른 곳에 비해 사연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거쳐 갔습니다.

지국장만 해도 다른 지국이 3.4대 정도인데 부산은 벌써 7대째입니다.



부산 지국을 거쳐 간 사람만도 유원우, 김용섭, 이동구, 안치용, 김정한, 최찬병, 정현기, 김기봉, 임종주, 윤현숙, 박종혁, 김인철, 홍석근, 김재형, 이병우, 유투권, 장아영, 김종술, 박주역, 문중선. (부산지국에서 한 달부터 20여 년을 근무하고 떠나간 사람들) 다들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무수한 포말을 뿌리며 부딪히는 부산 앞바다의 파도처럼 부산 지국의 추억들도 적지 않습니다. 1995년 봄,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중계방송을 하는 모 선배의 긴 머리가 들쭉거리려 의아했는데 나중 휴일 근무 때 머리술이 없는 것을 보고서야 그 비밀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또 주위에 고물상이 많은 탓에 사무실에 모기와 쥐가 많이 늘 스트레스를 받았고 쥐뿔을 놓고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근처를 지나면 늘 들르는 <아리산>이라는 중국요릿집과 <박통막걸리>, <마산돼지국밥> 등 인근 식당과 술집은 우리 직원들이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두고두고 기억나는 해프닝도 많았습니다. 한번은 서울에서 출장 온 취재기자가 생방송 중 첫 번째 원고를 읽고 다음 원고를 읽기 위해 원고를 손에서 떨어뜨렸는데, 때마침 분 바람에 원고가 마이크에 붙자 원고를 떨어뜨리기 위해 벌인 안타까운 몸 개그가 전국에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때는 신속 정확한 보도를 한 덕분에 "YTN만 남고 다 나가! 단디해라!" 라는 유가족들의 칭찬 같은 고함을 듣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1997년 3월 27일 구포다리 버스 추락사건 중계방송을 위해 케이블을 설치한 다며 밤중에 수십 개의 전봇대를 탔던 일. 태풍 매미 때 남항 방파제 어촌계 건물 3층 옥상에서 중계방송을 했는데, 바닷물이 서서 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눈앞에 다가 오는 해일과 공

중으로 페타이어가 날아다니는 모습에 혼비백산했던 일 등등이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 시간들 속에서 좋은 추억과 아쉬운 기억들로 부산은 다른 지국보다 더 많은 만남과 이별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2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오고 가고,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오늘도 지국 구성원 모두는 현장을 누빉니다.

회사의 먹거리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 다니는 손재호 지국장. 입사 때부터 풍채가 좋아 현장에서 부장으로 불리는 김종호 기자. 큰 키에 옷맵시가 뛰어나 패션모델 같은 전재영 부장. 부산지역 촬영기자 후배들을 잘 챙기는 후배들의 대부 지대웅 차장. 부산 시내 구석구석 안 가본 곳 빼고는 다 가본 인간 내비게이션 강성호 과장과 최일 대리. 그리고 늘 묵묵히 선배들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오디오맨 이건희. 앞으로 부산의 대세가 될 새 식구 차상은 기자! 그리고 부산지국 소속으로 경남을 담당하는 창원팀. 1인 2역은 기본인 울트라맨 박종혁 기자. 어찌나 아는 사람이 많은지 경남의 마당발 이철근 부장. 앉은 자리에서 술 한말은 기본인 주당 장건열 운전기사. 순둥이 박승환 오디오맨.

부산지국은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많은 그리운 사람들이 부산을 오고 떠나갔어도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8명의 전사들은 오늘도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들의 마음속으로 달려갑니다.

"역시 뉴스는 YTN이야"
와이~~~~티엔~~~~



변화하는 방송 트렌드, 그 곳에 우리가 있다

유료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업무가 있다. YTN에서 매체협력팀이 그 일을 한다. YTN, YTN 사이언스, YTN 웨더&라이프의 프로그램을 플랫폼에 공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위해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유료방송 플랫폼과 연간 140억 이상 규모의 수신료, 채널번호, 송출가구수를 협상한다. 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 개별SO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지방 출장도 수시로 가야 한다. 특히 변화무쌍한 방송시장에 맞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지속적인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PTV 사업자가 최대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플랫폼사업자는 서로 계속 몸집과 모습을 바꿔가며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엄청난 투자와 위험을 안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시청자, 즉 고객의 시청행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서 TV, TV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으며, 실시간 방송과 VOD의 병행 또한 중요한 방송 트렌드가 되고 있다. 특히 VOD 시장은 IPTV가 2,000억원, 케이블TV가 1,700억원으로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본방송과 재방송 외에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매체협력팀은 특별한 미션을 받았다. 우리가 제

작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본방송을 놓쳐도 다시 볼 수 있는 이른바 'YTN VOD 전용관'을 플랫폼에 론칭하라는 것이다.

초기 YTN VOD 전용관 신설은 저항이 컸다. "YTN, 언론사로서의 위상, 콘텐츠 생산능력과 live방송 등은 누구나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VOD는 좀 다른 분야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YTN 뿐만 아니라 VOD를 서비스하는 당사도 연간 몇 억의 비용이 발생하는 큰 결정이다. 또한 초기에는 VOD 판매 매출이 없어 서로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대부분 플랫폼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돌파구가 보였다. 모바일 IPTV에 론칭한 5중세트가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연간 유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 담당임을 만나 더욱더 적극적인 설득을 했고, 사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셨다. 방송관련 행사에서 플랫폼 담당 임원과 대면하실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셨고 상대 반응도 좋았다.

몇 달간 미디어사업국장, 매체협력팀장, 팀원들의 고생 끝에 마침내, IPTV, 위성방송(OTS), 디지털케이블TV에 YTN VOD 전용관이 신설되었으며, '5중세트'를 비롯한 YTN의 우수한 교양, 다큐, 시사 프로그램을 안방에서 TV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5중세트 천만뷰 돌파'라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다. 이렇듯 새로운 결실이 있을 때면 일하는 보람이 크다.

한기중 차장 | 미디어사업국 매체협력팀

백승하 차장

진남규 차장

이백준 팀장

한기중 차장



이 달의 자랑스러운 YTN인상

특종상

금상 -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선박 추적 연속 보도



이 선 아 _ 정치부

3월

동상 - 인천항 외국인 선원 '사다리 밀입국' 발생 및 검거 단독 보도



우 철 희 _ 사회부



강 희 경 _ 사회부



이 상 은 _ 영상취재1부

공로상

• 금상 - 5중 세트 천만뷰 돌파 공로 편성제작국 제작팀 / 사이언스 TV국 편성기획팀 / 웨더라이프국 / 미디어사업국 (콘텐츠사업팀, 매체협력팀) / YTN플러스

• 금상 - 국민신문고 <대한민국 경제를 부탁해> 6부작 국민신문고 제작팀

4월

은상 - 청주공항 충돌 위기 단독보도

특종상



이 강 진 _ 경제부



김 평 정 _ 사회부



원 인 식 _ 전국부 청주지국

공로상

• 금상 - 선거방송 품질 향상에 기여 공로 이정미, 김지선 _ 선거방송단
유영준 차장대우 _ 화면 R&D팀
신동훈 차장, 강창국 차장, 이은영, 오종근, 박해석 _ 기술연구소
장석문 차장 _ 편성팀
김수진 _ 데이터저널리즘팀
이승준 차장 _ 영상취재1부
전주영, 김희정, 이두윤, 연진영, 윤용준 _ 영상편집부

• 은상 - 신규 협찬 유치로 통해 프로그램 론칭 공로 김동민 부장 _ 보도국 스포츠부

• 은상 - YTN페이스북 영향력 증가와 뉴스밸류의 확대 공로 권준기, 서정호 _ 디지털사업본부

• 선정 이유

-3월 금상에는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 선박 추적 웹사이트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북한 선박의 국적세탁과 입항 거부 등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고 대북제재 본격화 국면에서 반향도 그만큼 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동상에 뽑힌 인천항 사다리 밀입국 보도의 경우 인천공항에 이어 보안문제를 제기해 당국의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인정됐다. 공로상은 굵직한 두 건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공동 금상을 수상했다. 5중 세트의 제작과 모바일, 온라인에서 천만 뷰 돌파는 YTN이 일찍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부탁해> 역시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잘 짚어내면서 고위공무원 교육자료로 까지 활용됐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됐다.

-4월 특종상은 간간히 심사로 은상 1건만 선정했다. 한통의 제보 전화를 단초로 팀워크 취재를 통해 특종을 이끌어 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다만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후속 취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쉽게도 은상에 그쳤다. 공로상 금상은 총선보도와 선거방송에 기여한 두 그룹을 함께 묶어 선정했다. 선거방송단의 경우 참여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YTN 선거방송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받았고 영상편집부 또한 총선보도와 선거방송에서 열과 성을 다해 함께 함으로써 방송을 더욱 빛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금상의 가치가 인정됐다. 공로상 은상을 받게 된 김동민 부장의 경우 적극적 업무역량을 발휘해 회사경영에 기여하고 프로그램까지 새롭게 추진한 점, 그리고 권준기, 서정호 사원의 경우 페이스북 구독자수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YTN의 뉴스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층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공로가 소중하게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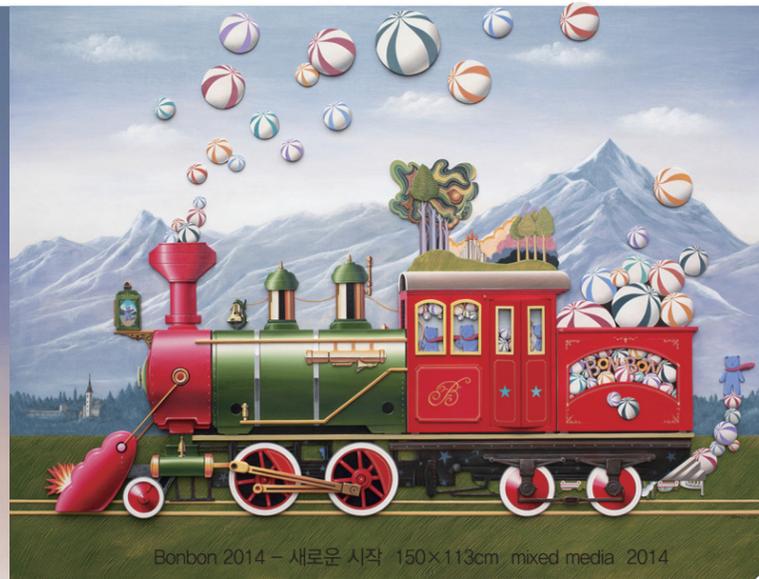


초컬릿 이야기 100x100cm mixed media 201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바인에서 소설쓰기 100x102cm mixed media 2014



Bonbon 2014 - 새로운 시작 150x113cm mixed media 2014



빈센트 서점을 지나 70x50cm mixed media 2012

상상력 가득한 삶의 에세이

흥경한 | 미술평론가

작가 박현웅의 작품은 일상(日常)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옮긴 진여(眞如)와는 다르다. 스토리는 보편적이고 생활적이지만 상상력의 가미가 있기에 맛깔스럽다. 그러면서도 논리적이거나 아이러니, 언표가 명확하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특히 순수한 심상을 관계적 삶과 고스란히 연계한 결과로서의 작품이라는 점은 눈길을 주기에 아쉬움이 없다.

이처럼 작가의 그림 속 대상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익숙한 형상들이자, 작가가 직접 여행하며 돌아본 평범한 장면들이다. 그렇다고 그의 그림이 단순한 형(形)의 집합이나 나열은 아니다. 각각의 도상들은 분명 실재하지만 상상력을 덧댈으로써 의미를 완성하는 결과물이라는 게 옳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기억과 회상, 경험을 관통하며 표상된다.

실제로 박현웅 작가가 다루는 주제는 매우 평범하다.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사물들도 너무나 친숙하여 시각적으로 부담 없는 것들이다. 일례로 그의 그림엔 코끼리나 오리, 곰, 새와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자리한다. 유럽 여행 중 접했을 법한 성(城)을 비롯해, 이국적인 전차와 자동차 등도 곳곳에 위치한다. 여기에 풍선과 구름, 해와 달, 나무와 산, 꽃과 꽃병, 도시, 사탕 등이 어느 귀퉁이 또는 한 공간에 리듬감 있게 따리를 튼다. 언뜻 봐도 예사로운 것들이요, 지각에 어연간한 것들이다.

이 중 기억과 회상은 작품을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알고리즘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를 소장한 수장고 같은 곳이다. 물론 이 둘은 경험이 없다면 애초 존치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험과 기억 그리고 회상은 세상동이다. 작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토대로 흡사 퍼즐을 만들 듯 자신만의 미학을 쌓는다. 추리고 조합하며 빛어낸 결과가 바로 그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는 작은 조각이 모여 방대한 서사를 이루듯 순차를 달리하며 '박현웅표' 회화세계를 구축한다. 이를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개체가 군중이 되고, 군중이 모여 하나

의 거대한 집단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의 회화세계에는 시간도 개입한다. 현실이라는 시간의 층위에 존재하는 각각의 기억을 간추려 대상과 교합시키고(관계시키고), 이를 다시 경험이라는 무대에서 상상을 첨가해 연출하는 방식이기에 시간의 흐름은 그의 예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숨은그림찾기> 혹은 그림에세이다. 미학적인 시각에서 그의 <숨은그림찾기>는 관계에 대한 감각적 내레이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관계에 대한 감각적 내레이션이란 사물과 사물의 관계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넓게는 그림을 매개로 한 인간 삶의 단면들, 개인 누군가의 여정일 수도 있다. 또한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정신과 물질마저 포괄하는 조형언어를 넘나드는 미적 언어로 정의해도 무방하다. 즉, 체험적 인식론으로서의 조형인 셈이다.

다만 그에게 있어 관계성이란 비극적, 고통스럽지 않다. 마치 동화처럼 환상적인, 동심의 순수성을 간직한 채 기쁨을 잉태한 관계가 지배적이다. 그야말로 사람과 삶에 대해 보석 같이 변치 않는 믿음 아래 존재하는 모든 인연과 생에 대한 고귀함, 가치, 존재와 부재에 대한 성찰, 사사로운 것에조차 애정을 심은 마음이 놓인 관계라 해도 무리는 없다. 결과적으로 박현웅의 작품들은 관계라는 안과 결

의 문제에서 '안'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밖의 언어를 차용하는 철학적 측면을 내보인다. 어떤 것 혹은 어떤 존재와 세계에 대해 동일성과 존재의식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석적인 부분도 있다. 특히 내적 미감의 상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화려한 외(外)를 보여주는 방식, 내(內)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렬한 구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장식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차라리 이미지와 색감, 스토리의 결합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옳다. 어쩌면 이것이 박현웅 작업의 핵심이 아닌가 싶다.

한편, 작품의 구성도 그렇지만 작가의 작업과정 역시 재미있다. 일단 그는 '목공예회화'라는 나름의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목공예회화'는 쉽게 말해 나무판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잘라내 여러 층으로 중첩시켜 완성하는 일종의 '부조회화'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의 그림은 입체적일뿐더러 빛에 의해 표정을 달리하는 울동이 있다.

신비롭고 묘한 기분, 왠지 모를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도 그만의 독특한 조형방식 탓이다.

박현웅 _ PARK, HYUN WOONG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조형 디자인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선화랑, 인사아트센터 등 개인전 30회 / G - seoul, KIAF, 화랑미술제, ART APART FAIR - Singapore, Spoon Art Fair - Hong Kong, 12 day's Journey of Aesthetic - Japan, The Passion and Beauty of Korean Art - USA, The Art of Oncology - Sanofi Aventis, Wonderful Picture - 일민미술관, Joyful Imagination - Lotte Avenuel 등 국내외 아트페어 및 그룹전 200여 회 출품
- 작품소장 _ 국립현대미술관, Save the children Korea 본사, CJ 헬로비전, 한국토지개발주택공사, 강원대학교 어린이 병원, 좋은 종합병원
- 기업 콜라보 _ 2014 KT캘린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외벽설치, 국립중앙박물관 캐릭터 등 다수

피크닉 150x50cm mixed media 2015



YTN Never Dies

영국 정보부에 제임스 본드가 있다면
YTN 앵커실에는 오동건 앵커가 있다!

월터 PPK 권총을 들고 적의 소굴에 잠입하는 007처럼,
한 밤의 YTN을 사수하라는 앵커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오늘 밤, 그는 조용히 스튜디오로 걸어 들어간다.

정리 | 최영아 기자 YTN PLUS

| 협찬 | **Creta** 크레타 스튜디오
www.icreta.com / 02_3142_0010, 0070
촬영 / 이다혜
디렉터 / 최재용 (커뮤니케이션팀)

Q. '007 제임스 본드' 변신, 어땠나요?

부끄럽죠. 저랑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근육질의 스파이 007 컨셉으로 촬영을 한다고 하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나마 다행은 제가 원래부터 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군대에서도 사격을 잘 해서 만발 경험도 많았어요. 요즘도 어디 놀러가서 사격 게임을 하면 항상 인형을 타서 딸은 아빠가 쓰면 당연히 경경품을 타는 줄 알더라고요.

Q. 평소 첩보 영화 즐겨 보는지?

영화를 볼 만큼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첩보 영화만큼은 정말 좋아해서 웬만해서는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첩보 영화는 확실히 짝짝한 맛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007 시리즈' 보다는 인간적인 면이 느껴지는 '본 시리즈'를 더 좋아해요.

Q. 앵커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나요?

어릴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도 대부분 국문학과를 쓰고 딱 한 곳만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했는데 합격을 하는 바람에 진로가 달라진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교사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교단에 서 보고 싶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었고 인생에 좋은 지침을 받아서 그 빛을 꼭 갚고 싶어요.

Q. 앵커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사실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감사한 순간입니다. 회사에 매일 출근을 하고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꿈같은 일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앵커가 아니더라도 매일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어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순간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Q. 영화 '어벤져스2'에 출연하셨던데?

당시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얼떨결에 찍게 됐어요. 사실 영화에서는 워낙 짧게 등장해서 출연을 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죠. 대신 영화가 개봉을 하고나서 딸이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고 덕

분에 우리 딸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었죠.^^

Q. 힘들 때 오동건 앵커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지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잠들기 전에 항상 아빠가 안전하게 퇴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네요. 한밤중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두 여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을 볼 때마다 저는 행복한 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들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나요.^^

Q. 오동건 앵커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이 20대를 추억하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생각도 안정이 되고 삶의 방향도 뚜렷해지면서 10년 후 제 모습이 너무 기대가 돼요. 물론 지금보다 배도 더 나오고 머리술도 줄었지만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너그럽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이면의 깊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고 싶어요.





5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장소협찬 | 뮤직 갤러리 (Rheehall)
02_745_0202

유석현 앵커 | 국민신문고

[추천 음반]

명곡인 만큼 시중에 나온 CD들도 다양하다. 클래식 CD를 소개하는 '펍가이드'는 필립스에서 나온 마이스키(첼로), 아르헤리치(피아노)의 연주와 데카에서 나온 로스트로포비치(첼로), 브리튼(피아노)의 연주를 추천하고 있다. 그라모폰에서 나온 푸르니에(첼로), 폰다(피아노) 연주도 명연이다. 유튜브에서 이런 저런 연주를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음반을 구입해도 좋다.



연재를 시작하며

거의 모든 거장들과 관현악단의 연주를 인터넷으로 듣고 볼 수 있는 시대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고전음악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끈기 있게 들다보면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신세계가 펼쳐진다. 더 나아가 좋아하는 곡이 생기고 마음에 드는 연주를 알게 되면 고전음악은 기쁨 때 함께 좋아하고, 슬플 때 위로해주는 평생 친구가 된다.



수제이, 첼리스트 피에르 푸르니에, 영국 로열발레단, 정경화, 필라델피아 관현악단 등의 연주가 있었고 6월엔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 빈 오페라단, 하피스트 니카노르 자발레타가 무대에 섰으며 7월 8일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예술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극장 70회, 소극장 82회의 공연에 출연한 연인원이 1만여 명에 달하고 관람객도 26만 여명에 이르러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술행사임을 실감케 했다"
-경향신문 78년 7월 5일 자

고전음악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클래식에 푹 빠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대화에 끼려면 일단 음악을 들어야 했다. 독서클럽 일원이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하듯이...

운 좋게도 당시 집에는 국내업체인 동남전기(흑백TV도 제작했음)가 일본 샤프와 제휴해 만든 뮤직센터(앰프와 튜너, 턴테이블, 카세트 일체형)가 있었다.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라이선스 클래식 음반을 구입해 듣는 재미도 쏠쏠했다. 1970년대 후반 성음제작소가 그라모폰, 필립스, 데카, 지구레코드가 RCA, CBS/SONY(후에 SONY가 인수) 레이블로 클래식 음반을 속속 출시했다. 가격은 1,200원에서 1,400원 사이로 대학생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알바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이 음반 구입에 투입됐고 당구를 쳐도 음반을 걸고 '피 튀기게' 일전을 치렀다. 음반이 하나 둘 쌓이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기본적인 곡들은 대부분 섭렵(?)했다. 라이선스 음반은 이른바 '뺨판'에 비하면 음질이 월등했지만 데카에서 나온 정경화의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처럼 한국 팬들의 인기 속에 너무 많이 찍어내는 바람에 음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

그런 와중에 1978년 4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문을 열면서 이를 기념하는 예술제가 열렸다. 예술제는 4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렸지만 주요 공연은 5, 6월에 집중됐다. 5월엔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와 제라르

1년에 한번 볼까말까 한 공연이 두 달 동안 연일 열리면서 나도 '거금'을 들여 그것도 C석이나 D석으로 최소한의 공연표를 구입했다. 그래서 들었던 곡이 푸르니에가 연주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와 정명훈의 피아노 반주로 정경화가 연주했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유진 오먼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관현악단의 브람스 교향곡 1번이다. 그 가운데 비교적 친해지기 쉬운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소개한다.

• 슈베르트의 첼로 소나타 a단조 '아르페지오네'
아르페지오네는 1823년에 빈의 슈타우퍼(Staufner)가 개발한 악기로 기타와 같은 몸통에 6줄의 현을 활로 연주했지만 별로 쓰이지 않으면서 잊혀져 버렸다. 하지만 슈베르트는 이 악기에 반해버려 이 곡을 썼고 오늘 날 아르페지오네가 아닌 첼로로 연주되다보니 고음부의 빠른 패시지를 낼 때 연주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선율이 너무 달콤해 첼리스트가 얼마나 힘들게 연주하는지 눈치 채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감미로운 제1주제와 명랑한 제2주제로 이뤄진 1악장, 우아하면서 느릿느릿한 2악장, 론도 형식의 노래하는 듯한 3악장으로 이뤄져 있다.



날씨를 그리는 꿈꾸는 기상캐스터

이해민 기상캐스터 | 웨더라이프

“하늘을 하루에 몇번이나 올려다 보시나요?”
바쁜 일상에 치여 하늘 한번 올려다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양은...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하늘표정도 살피고
산책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가 더 풍성해 지실 겁니다!!

장소협찬 | 공방 (지중해 소나무)
02_302_1183

안녕 하세요, YTN 날씨지기 이해민입니다.
저는 출근을 하면서 습관처럼 하늘을 한 번씩 올려
다봐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을 때면 가슴이 뻥 뚫리고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우중충한
날에는 감성에 젖기도 하고 다양한 날씨 표정과 함께 하루를 시작
하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 표정과 계절의 변화를 매일 살피다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요. 저 역시 지금처럼 기상캐스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
니까요.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지인들에게는 푼수 끼 다분한 왈가닥이나
낯선 이들에게는 차갑다 느낄 정도로 내성적이었던 아이였어요.
주로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등 손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
현하는 것을 좋아했죠.

요즘 가끔 '특기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면 '음.. 공예하고요, 그림 그리기요.' 라고 대답하지만 예전과 너
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인지 제가 대답을 하고도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옛 시절을 떠올려보면 생생해요. 대학 시절 나만의 걸작
품을 만들어 보겠다며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며 지냈던 기억, 축
제 때면 내가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들고 나가 판매했던 기억,
미술학도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요즘도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곤 하죠.
방송을 하다보면 항상 긴장의 끈을 놓
을 수 없기에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
가 쌓이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
은데요, 잠시 시간을 내서 취미
로 내가 좋아하는 장소나 남
기고 싶은 순간, 인물을 손
으로 표현하다 보면 복잡했
던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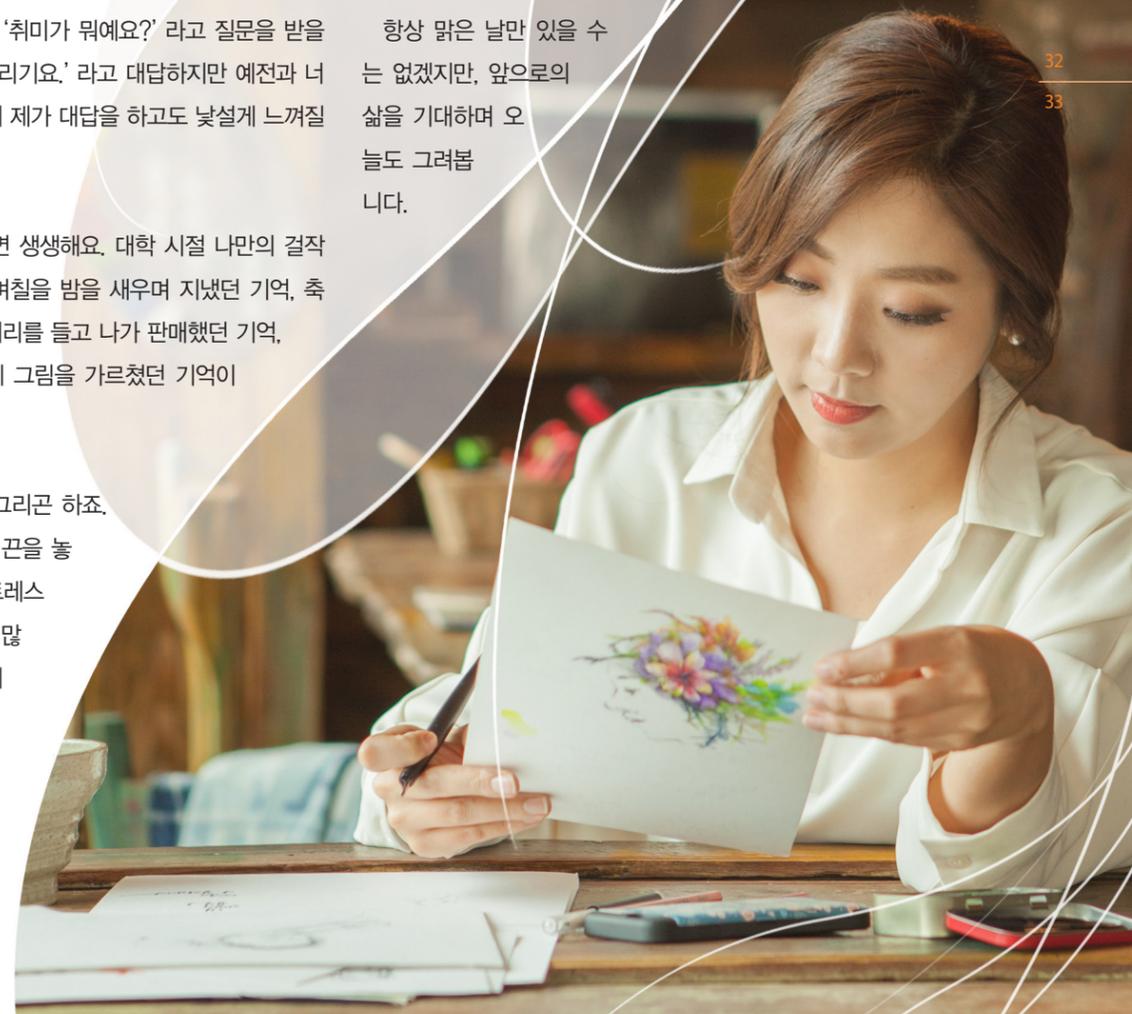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그림과 함께 요즘 새롭게 생긴 취미는 캘리그래피!! 일명 '손글
씨' 인데 그림과 함께 글씨에 마음을 담아 선물하거나 기록을 남기
곤 해요. 나중에 보면 그 당시의 내 생각이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새롭고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줄 수 있어 참 좋아요.

손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카메라
앞에서 날씨를 전하게 될 줄이야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방송국에서 일하면 어떻게? 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리
포터를 계기로 기상캐스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이
우연보다는 운명 같아요. 인생이라는 큰 도화지에
제 삶의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날씨를 그리고 있지만, 앞으
로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
요?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
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며 오
늘도 그려보
니다.





카툰 : 최재용 차장 | 커뮤니케이션팀

보라! 여기 진짜 기자들이 있다!

<스포츠라이트>

최광희 | 영화평론가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영화 <스포츠라이트>는 미국의 3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지가 지난 2002년 터뜨린 특종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신문에는 사회의 부정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탐사 보도팀이 있는데, 이른바 '스포츠라이트'팀이다. 새로 부임한 편집국장은 칼럼을 통해 슬쩍 언급되고 만, 이 지역에서 발생한 천주교 사제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집중 취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제부터 팀장 월터(마이클 키튼)를 비롯해 4명의 스포트라이트팀 기자들은 사건의 피해자와 변호인 등을 만나 인터뷰하는 등 본격 취재에 나선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들이 알고 있는 단지 몇 개의 사례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더욱이 보스턴 지역의 추기경이 사제들의 광범위한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덮어 버렸다는 정황까지 포착하게 된다.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의 보스턴 사회에서 이 사건을 들추는 것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천주교 안의 부조리함을 폭로해야 하는 집중 취재 과정은, 지역 사회의 유력 인사들과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괜한 짓' 취급을 받게 된다. 종교를 건드리는 건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종교는 언론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가? 스포트라이트팀의 입장은 언론의 자유 앞에서 성역은 없다는 것이었고, 결국 그들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 대형 특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스포츠라이트>는 영화 자체로 언론의 교과서라도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집요하고도 정의로운 기자들의 활약상에 초점을 맞춘다. 편집국장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포트라이트팀을 격려한다. 추기경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슬쩍 압력을 가하자 편집국장은 대답한다. "언론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건 독립성입니다."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가 묘한 공명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는 스포트라이트팀에게 지침을 내린다. "개별 사건이 아닌 시스템을 보라!" 이거야말로, 하나의 이슈에 접근해 들어가는 언론의 가장 바람직한 태



도가 아닌가. 편집국장은 더 빨리 개별 사건들을 폭로함으로써 특종을 얻는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고 더 세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아동 성추행을 목과해 온 미국 내 천주교의 시스템 문제를 건드리려고 했던 것이다. 개별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명한 4명의 기자들은 그 지침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취재 과정보다 훨씬 더 견고한 벽을 넘으려고 애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증거와 팩트를 찾아 나선다. 그들은 단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명명

백백한 팩트에 근거한 '폭로'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보스턴 글로브의 데스크와 스포트라이트 팀은 언론의 모범 답안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 보도로 2003년 풀리처상을 받았다. 언론은 매일 매일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들 가운데 뉴스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해 이슈화한다. 모든 언론에게 공개되는 데일리 이슈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춰진 사회의 부정이나 부조리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언론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언론을 'Watch Dog'이라고 부른다. '감시견'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언론에서는 탐사 보도, 또는 추적 보도를 통한 대형 특종이 가물에 콩나듯 나오고 있다. 내 기억에, 주류 신문은 물론이고 방송 언론에서 대형 비리를 끈질기게 추적해 폭로한 기사나 보도를 최근 들어 거의 목격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의 언론은 시민을 위한 감시견으로서의 'Watch Dog'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파수꾼으로서의 'Watch Dog'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언론이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할 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독버섯처럼 편법과 부패가 자라난다. 영화 <스포츠라이트>를 이 땅의 모든 언론인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바이다. 어쩌면 신입 기자들을 교육시킬 때 선임 기자들의 백 마디보다 이 영화 한 편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영화에는 '진짜' 기자들이 나온다.



세계를 향한 방송! 열정을 담은 기자단!

서기원 | 특허청 청소년 발명가재단 · 대구 상원초 6학년



기자정신이 궁금하면 YTN으로 오세요~



김예준 | 특허청 청소년 발명가재단 · 일산동고등학교 1학년

특허청 발명기자단 소속 초등부 학생 20여 명과 함께 지난해 6월 30일 YTN 뉴스퀘어를 방문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견학과 체험활동은 방송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했다. 메르스 여파로 모두 마스크를 쓰고 견학을 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막을 수 없었다.

먼저 7층 회의실에서 박경석 홍보팀장이 YTN 홍보영상과 주요 업무를 소개했고, 1층부터 견학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방송국 시스템과 업무를 친절히 설명해 주셨다. 세계 각지에서 24시간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었고, 고가의 장비들에 의해 방송이 송출되는 과정을 설명 들으면서 IT강국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신뢰받는 세계적인 방송 강국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봤다.

또 체험 스튜디오에서 기상 캐스터가 날씨 예보하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직접 촬영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어서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뉴스를 진행하는 스튜디오도 관람할 수 있었는데, 직접 앵커 자리에도 앉아 기념사진도 찍고, 미래에 앵커가 된 듯한 기분도 낼 수 있었다. 뉴스 스튜디오 바로 옆에 모든 방송 컨트롤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는 동안의 긴박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실 때 나도 같

이 긴장되는 듯했다. 분장실이나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면서 방송을 위해 많은 분들의 화합이 필요하며 힘든 작업 과정에서도 몇십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베테랑의 자질을 갖춘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24시간 동안 생생한 뉴스와 정보를 전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초등부 기자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박경석 홍보팀장께서 YTN 명예기자증을 한 사람 한 사람 목에 걸어주셨다. YTN 명예기자라는 뿌듯함과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만족한 하루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새벽 열차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YTN을 방문한 노력에 비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앵커와도 만나고 기자로서의 소양에 대해 전문 기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더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방송 시스템이나 역량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물과 수첩, 기자증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난해 12월, 서울 상암산로 YTN 뉴스퀘어에서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을 위한 YTN 아카데미 4기가 진행됐다. YTN은 미국의 CNN처럼 24시간 실시간으로 뉴스를 방송한다. 정각마다 뉴스를 하고 갑자기 사건이 터졌을 때 속보를 올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승려문이 불타는 사건이 일어날 때도 가장 먼저 보도한 곳이 바로 YTN이다.

내가 봤을 때 무엇보다 타 방송국 뉴스와 큰 차이는 바로 앵커였다. YTN 앵커는 뉴스만 한다. 그래서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과 신중함이 중요하고,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 회의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의 정도도 크다.

YTN 견학에서는 연예인이 출연했을 때 연예인을 보러온 팬들도 찍히는 스튜디오가 인상 깊었다. 또 앵커가 많은 내용을 능수능란하게 말하는 것이 신기했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카메라 렌즈 아래 디스플레이를 두고 글자를 반사시키면 카메라를 보고 원고를 읽을 수 있다. 또 기상캐스터는 파란색을 옷을 못 입는다고 한다. 그래픽을 합성시키는 부분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 옷을 입으면 그 부분에 그래픽이 나타나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파란 눈을 지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 배경을 쓴다고 한다.

견학을 마치고 이승준 촬영기자의 '촬영기자의 세계' 강의를 들었

다. 우리 눈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란 것을 통해 영상을 만들게 됐고 지금은 그런 영상을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눈의 착시를 역이용한 '미켈란젤로의 캄피돌리오 계단'이 있다. 계단의 높이는 같은데 위 면적이 넓어져 신기하게도 계단의 높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나 관광객들이 계단이 높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오르다가 힘이 들어 낭패를 본다. 촬영할 때도 눈의 착시 효과를 이용해 화면을 구성하면 뉴스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민들이 있는데서 난민만 찍는 것보다 맛있게 밥을 먹는 사람들 같이 찍거나 그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과 같이 찍으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YTN 아카데미를 통해 기자가 가져야 할 정신과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또 뉴스를 볼 때 오로지 믿고 보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봐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고광남 감사 / 김 백 상무 퇴임식 _ 3. 21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_ 3. 25



강릉영동대 콘텐츠 교류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 _ 4. 1



기획재정부 수습 사무관 YTN 현장 견학 _ 4. 7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복리 증진과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 _ 4. 14



서울타워 캐릭터 걷기대회 _ 4. 17



안양대학교 콘텐츠 교류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 _ 4. 27



우수강소기업 발굴 및 좋은 일자리 홍보 확산을 위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 협약식 _ 5. 11

스포츠 24

DYNAMIC YTN SPORTS

스포츠의 모든 것!

since 2008 역사와 전통의
YTN 대표 프로그램

아는 만큼 즐겁대!
스포츠 24 많이 사랑해주세요

김재형 기자

박유라 아나운서

매주 토요일 새벽 2시 35분 | 오전 11시 35분

기획 김동민 PD 이희수 AD 김혜리 작가 이선우

Yes! Top News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자리를 지키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뉴스를 만나는 길은
그리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학자가
9년 동안 한결같이 꿈은
가장 공정한 뉴스,
YTN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최고의 뉴스 채널,
YTN입니다.